

계몽운동 오류 극복, 무장투쟁론 주장한 '민족공산주의자' 과학적 인식 부족하나 사회주의 최초 보급은 재평가받아야

역사 속에 잊혀진 인물 <2>

기획시리즈 - 일제하 민족해방운동과 사회주의자

이동휘

한국공산주의운동의 선구자



이동휘 (1905년 12월 3일 ~ 1993년 12월 13일)

머리말

1920년대부터 조선의 민족해방운동은 사회주의운동이 그 주류를 이루면서 발전하였는데, '민족공산주의자'라고도 불리는 이동휘는 초기 사회주의운동의 이념을 확립 시킨 중요한 인물이다. 이 글에서는 이동휘가 사회주의의 활동을 고찰함으로써 초기 사회주의운동에서 이동휘가 차지하는 역사적 역할과 성격, 그 한계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이동휘의 성장과 애국계몽운동

이동휘는 1873년 12월 3일 함경남도 단천군 파도면 대성리에서 단천 이인 이씨로 태어났다. 본관은 해주이고 아호는 성재이다. 이동휘는 18세에 봉인이라는 하급 관리가 되어 근무하다가 단천군수 홍종후의 탄핵을 받고, 군수의 일급에 정호되기를 뒤집어 쓰려고 상경하였다 한다. 이후 그는 당시 궁내부 고관으로 있던 이윤익의 도움을 얻어 24세에 무관직에 임하였다.

1902년에 이동휘는 강화도의 진위대장으로 취임하였는데, 강화도대선교사들의 영향으로 기독교 사상을 접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강화도의 진위대장으로, 감리교회의 권사로 시 강화도 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강화도에 합일학교, 보광학교 등 많은 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는 당시 기독교의 이념을 구하는 근대 민족주의의 입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교육과 실력양성을 통한 민족회복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는 1902년에 이상재, 이상설, 박

은식, 남궁훈, 노백린, 양기탁, 정지언 등과 함께 민영환, 이준, 이윤익이 조직한 비밀결사체인 개화당에서, 그리고 1904년에는 이상설, 이준, 이상재 등이 조직한 대한협동회의의 사무부장·평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일제의 국권침탈행위를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여 일제하에서 '당장 쉼돌부러기문'을 반란받기도 하였다.

당시 대다수의 계몽운동가들이 교육을 통한 실력양성으로 국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선실업양성 후독립론'에 의거하여 의병전쟁을 비판하였던 것과는 달리, 이동휘는 무장투쟁을 통한 '선독립후'를 지고 있다고 하였다. 1907년 8월에 군대가 해산되자 강화도 진위대에서의 의병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이때 이동휘는 의병운동에 앞장서서 주민들을 이끌었다. 당시 그는 강화도 지역에 무관학교를 세우고 무장투쟁을 전개하려는 독립전쟁론을 갖고 있었다.

그는 1911년 일제가 발표한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서해안군 대무도에 유배되었지만 그리하여 독사의 도음으로 석방되어 복귀한 후 총정리장관으로 임명되었다. 복귀한 후 이동휘는 조지훈과 그의 독립전쟁론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북간도에 공작무관학교를 세우고 독립전쟁을 준비하였으며, 많은 학교를 설립하였다. 또한 1913~14년경부터는 연해주 지역에서 권업회, 대한국농장부, 신동계명당 등에 참가하였다.

1916년에 일본비밀첩보대는 이동휘가 반러독립을 전개하는 독립의파이임을 허위 사실을 유보하여 1917년 초에 스카이 협회의로 구속되었다. 이동휘는 감옥 안에서 불세비기 인물임을 나타내고, '공산당선언', '유물론과 경제비판론' 등의 사회주의 사상을 접하였다.

1917년 3월 불세비기의 도움으로 석방된 이동휘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유배, 문장법 등과 함께 '조선한국독립총회'를 조직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이동휘는 자연스럽게 사회주의를 접하게 되었고, 그 영향 아래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2. 사회주의운동론 통한 독립운동

이동휘는 1918년 2월 하바로프스크에서 개최된 '한민족면회'에 참석하여 소비에트 정부로부터 조선 독립운동에 대한 지원을 약속받았고, 6월에는 김립, 유승봉, 박재, 전



김백령

일, 박진선 등과 함께 한민족사회당을 조직하였다. 한민족사회당은 이듬해 5월 김규현이 이끄는 무장단체 신민당을 군사조직으로 삼고 무장투쟁을 갖춘 한민 사회주의 그룹으로 그 체제를 정비하였다. 한민사회당의 무장투쟁을 통한 소비에트 정부형태의 국가 수립을 지향하였다.

이동휘와 한민사회당은 기본적으로 상해임시정부나 대한주 지역 의 대한국민회의와 같은 민족주의적 조야 단체들과는 다른 민족주의적 입장에 있었다. 그러나 이동휘는 임시정부의 기관을 바탕으로 소비에트 정부로부터 더욱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의도 아래 대한국민회의에 참여하여 군부조직을 설립하였으며 1919년 8월30일 상해임시정부의 국부조직으로 부임하였다.

임시정부의 국부조직으로 부임한 이동휘는 강화도 지역 각 단체의 유력자들을 규합하였으며, 군주·민중주 지역 의 총합도, 이윤, 구수환 등과 연계하여 독립운동을 추진하였다. 1920년 1월에는 박진선을 모스크바에 파견하여 한민사회당이 코민테른의 상인이 되도록 하였으며, 같은 해 봄에는 김립, 김관경, 이한영, 여운형, 신재호 등 공산진영 및 민족진영의 인사들을 규합하여 세력을 확대하였다. 이와같이 이동휘는 임시정부의 국부조직에서 임시정부 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실제로 상해임시정부는 이동휘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임시정부'라는 권위와 위치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다.

1920년 5월 이동휘는 임시정부 각 부 차장들과 함께 이승만 퇴진운동을 전개하면서, 독립전쟁론에 근거한 임정의 개편을 주장하였으나 이승만, 안익준, 이동녕, 이시영, 안창호 등의 친비교독립운동자들의 의견과 대립하게 되어 임시정부를 탈퇴하고 국부조직을 사임하였다.

이동휘는 1920년 12월에 36세의 무장단체를 결성하여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였다. 1921년 1월에는 한민사회당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고려공산당(상해파)'을 조직하였고, 5월에는 여타 한민 공산주의 그룹들과 함께 고려공산당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당선언과 강령·조직을 제정, 발표하였다.

상해파 고려공산당은 강화도 및 조선 국내에 사회주의 선전활동을 펼치며 사회주의 사상을 보급하였다.

다. 사회주의 선전활동은 '새 세상'이오면, '새벽' 등 잡지를 국내에 반입하였고, 주요 농산지와 산업 중심지에 사회주의 씨름들을 조직하여 사상운동 및 대중운동을 전개하였다.

3. 이동휘와 자유시사변

이동휘의 상해파 고려공산당은 연해주 지역의 또 다른 공산주의자 그룹인 이른바 '이르쿠츠크' 공산당(진로공산당, 러시아 공산당 이르쿠츠크 한민지부)과 대립하면서 격지 않은 운동역량의 신임을 가져왔다. 이르쿠츠크와 공산당은 김관경, 오해국 등과 같은 연해주 지역 귀화한민들로 이루어진 공산주의자 그룹으로서 1920년 6월에 일본에 등장하였다. 한민 공산주의운동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고 대립하였다.

당시 연해주 지역 운동파들의 급과 민족주의 자의에 비추어 볼 때 이동휘 계열의 상해파 고려공산당은 그들의 최후 목적을 조선의 독립에 두고 있었으며, 공산주의는 어디까지나 이를 이룩하기 위한 수단으로, 즉 공산주의를 표방하여 소비에트 정부의 원칙을 얻기 위한 '가면'으로만 인식하였다고 그리고 그 구성원들도 비키로인들만 한정하고 있었다.

상해파 고려공산당은 국제정세에 어두웠으며, 요정정세와 자정사회의를 비관하는 세인들의 비난을 사기도 하였다. 이는 분명히 자정사의 남방의 남방에 대하여 여운형, 김관경, 안병환 등이 이동휘에게 자정사의 사명을 물었다. 이에 이동휘는 답변을 거부하였다. 이에 이들 이동휘와 결별하였는데, 1921년 5월 이르쿠츠크와 고려공산당 관계자들을 설치하고 만이동휘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1921년 6월에는 소비에트 정부와 이르쿠츠크의 운동파들에 의하여 상해파 무장단체들에 대한 무장태세가 이루어졌으나 이것이 곧 '자유시사변'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이 자유시사변으로 이동휘는 곤경에 빠지게 되었고 그 세력은 약화되어 갔다.

1922년 11월에는 베르데나우스크에서 고려공산당 연합대회가 개최되었으나 대의원 자격제로는 논쟁이 없으나 대회가 무산되었다.

이동휘와 상해파의 정치노선은 이르쿠츠크와 공산당 및 소비에트 정부의 정책과 노선에 대립하는 것이었다.

4. 조선공산당과 이동휘

연해주지역 운동파들의 파쟁은 민족해방운동에 큰 손실을 끼쳤다. 이에 대하여 코민테른은 해외조선인 공산주의단체들의 해체를 명하고 '1국1당'의 원칙에 의하여 유일한 조선공산당을 조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리하여 1922년 12월에는 코민테른 동방지부 산하의 이르쿠츠크(고려파)가 설치되었다. 이르쿠츠크에서는 김관경, 신정, 김관 등 이르쿠츠크파 계열의 운동가들이 국내에 파견되어 조선공산당을 창당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이동휘는 이에 대하여 자신이 만들어 놓은 '조선 국내의 조직적 기반을 이르쿠츠크파 사람들이 탈취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코르부르 내에서 이르쿠츠크파와 상해파의 분열은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이르쿠츠크파 해체되고 1924년 3월에는 이르쿠츠크(조지파)가 설치되어 조선공산당의 창당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이 때 이동휘는 블라디보스톡 지역의 신민당에서 조선공산당이라는 한계에 임하고 있었다.

당시 당창당을 위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이동휘는 별도로 자라 세력인 상해파 인물들을 규합하여 적기탄을 조직하고 그 부를 영인한 영고파에 투영하였다. 적기탄은 이동휘 휘하의 무장파대로 구성하여 동해, 길림, 간도 방면에서 그들의 지부를 설치하고 자정사회의 공산주의를 표방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25년 4월에는 이른바 '민족해방'의 불타고 있는 상황속에서 조선공산당이 결성되었다. 그러나 이동휘는 조선공산당 창수총과라는 달리 양기탁, 유승봉, 현정경, 이동녕 등 민족주의 및 천교교계의 인물들과 함께 '고려해방'을 결성하고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26년 3월에는 강당영을 위하여 재건된 조선공산당을 승인하고 이들과 합세하려고도 하였으나 이후 1927년 12월에 이영 등 서울파 사회주의자들의 의하여 결성된 그룹, 일명 '준정권당'이라고 일컫는 그룹의 인물들과 조직적으로 코민테른 6차대회에서 조선공산당을 무인하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1928년 12월 조선공산당이 해체된 후, 1929년 1월에는 블라디보스톡에서 김관경, 윤자영, 김관경 등에

글 쓰는 순서

- 1 총론-일제하 민족해방운동과 사회주의자
- 2 이동휘-한국 공산주의운동의 선구자
- 3 김관경
- 4 차경봉
- 5 이재용
- 6 박 달
- 7 허경성
- 8 이계영

이하여 '조선공산당창당결의회'가 조직되었는데, 이동휘는 이 그룹의 총지부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조선공산당창당결의회는 이후 이동휘를 블라디보스톡에 남겨놓은 채 그 활동무대를 만주로 옮기게 되었고, 1932년 3월 김관경의 지도 아래 동해에서 '조선공산당창건준비위원회'가 다시 결성되었다.

이동휘는 1935년 1월31일 블라디보스톡에서 병사하였다.

맺음 말

이동휘는 항상 그 활동에 민족자본 없이 앞선 나머지 민족혁명과 계몽혁명의 공로로 찾아점을 통일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민족해방운동선상에서 제후하여 할 대장들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자유시사변 이후로는 민족해방운동의 주류가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인식의 한계는 시대적 산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그의 민족주의의 의지와 사회주의운동에서의 역사적 역할을 평가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한평생을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살았던 이동휘는 타협과 계몽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민족해방운동의 전환기에 자신의 세계관을 전환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는 해외에서 한민사회주의운동세력을 형성하고 조선국내에 사회주의를 보급한 최초의 운동가였으며, 초기 사회주의운동선상에서 코민테른의 지지를 확보하고 조선의 민족해방운동을 해외에 알린 최초의 민족혁명가였다. 이동휘는 남북대로의 한계를 갖고 있었지만, 한국 공산주의운동의 디딤돌이 된 '초기사회주의자'였다.



초기 상해임시정부 요인인 이동휘가 임시정부를 창건한 독립운동의 한 장면이다.

우리의 것을 지키거나 함은 있었습니까?

만흔림 보람을 찾는 뜨거운 젊음이 있습니다.

백자의 단아한 선, 삼강정자의 섬세한 문양, 무늬들... 조상들의 숨겨진 보물이 배어 있는 자랑스런 문화유산들. 아무의 세상이 편해지고 외국의 물질문명에 휩쓸려 있다면 우리의 젊은이들은 자랑스런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높은 긍지가 있습니다. 만흔림 우리의 것을 배우고 보존하려는 뜨거운 젊음이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만흔림 우리의 긍지를 찾는 젊은이들의 뜨거운 마음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